

97. 2. 21



여성노동력을 적극 활용한다지만, 정부의 공식통계조차 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 기초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남성중심 통계 다시쓰자”

97. 2. 21

무급 가족노동 85%가 여성...비경제인구로 분류
여성개발원 가구별 여성취업등 435개 지표 제시

남성 중심의 통계를 바꾸기 위한 여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최근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한 <여성사회지표 개발>을 펴냈다. 여기에는 인구·가족·보건·복지 등 9개 부문에 관심영역 36개와 세부관심영역 98개를 설정해 모두 4백35개의 지표가 담겨 있다.

여성계는 앞으로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를 담은 자료집을 펴내는 작업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통계 자료엔 기본적인 성별 구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예를 들면 <여성사회지표 개발>에 포함된 △성별 주택·부동산 소유 △가구주 소득별 여성의 취업 여부 △비경제활동 여성 중 전직자 비율 등은 지금까지 조사조차 안됐다.

기존 통계에 스며든 성차별은 정부가 노동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 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화여대 여성학과 이재현씨의 석사학위 논문 '공식통계에 대한 여성학적 재검토'에 따르면, 조사방법은 물론 실업·경제활동인구 등의 개념들, 질문지 구성 등 조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가 배어 있다. 여성이 주로 맡는 가사노동 등 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 용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은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노동력 접근법'이라고 불리는 조사방법 자체가 성 차별적이다. 이 방법은 일정한 짧은 기간 안에 평가한 각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종합해 국민경제 및 노동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인구 가운데 15살 이상을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임금·노동시간 및 구직 여부 등을 물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는 식이다. 이렇게 1주 단위 경제활동상태를 평가할 경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취업형태는 1일 8시간, 1주 5~6일, 연 52주 연속근무인데 이른바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바로 남성이다.

우선 주요 개념에서도 성차별이 드러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포함된다. 문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여성이라는 점이다. <92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무급가족종사자는 1백97만4천명(경제활동인구의 10.4%), 이 가운데 여성은 85%에 이른다. 결국 가사노동 때문에 18시간 미만을 일하는 많은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여성을 부차적 노동력으로 보고,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정부는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따로 통계를 뽑지 않는다.

실업 개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면서 조사주간(1주일)에 일을 찾은 적이 있

다’는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한다. 지금의 이 개념에 따를 때, 수많은 여성은 배제된다. 가사노동을 병행하고 제한된 구직 정보를 가진 여성이 매주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실망실업자로 분류돼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버린다. 일정한 직업훈련과 여건이 마련되면 취업할 수 있는 여성들이 아예 그럴 기회조차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실망실업자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인구’를 의미한다. (표참조).

그 결과 여성실업률이 과소평가돼 남성 실업률을 밀도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2년 여성실업률은 2.1%인 반면 남성은 2.6%였다. 70년대 이후 여성실업률을 남성보다 높게 집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와 비교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지불노동 중심의 좁은 경제활동 개념을 가사노동 및 자원봉사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1주일인 실업 판정 조사주간을 1개월로 연장하고, 실업 개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3주 이상의 장기실업자 실업률 등 7개 부문의 실업률을 산출한다.

조준상 기자

실망실업자 규모와 여성의 비중 출처: <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망실업자
전체	48만4천명	1천3백39만7천	2백9만6천명
여자	14만6천명	9백64만3천명	1백65만8천명 (전체의 79%)

*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됨.